코로나 충격에 문 닫는 음식점들

서귀포시 지역 커피숍·음식점 창업 줄고 폐업 늘어
"당장은 버티지만 몇 달동안 이어질 수도" 우려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식이나 모임을 자제하며 외식업계의 매출이 반토막나는 등 쓰나미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올해 서귀포시 지역에서의 커피숍과 일반음식점 창업은 줄고 폐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잖아도 지난해부터 경기침체로 자영업 폐업이 증가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될 경우 지금은 겨우 버티는 곳들도 폐업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지역 외식업계의 충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2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들어 23일까지 창업한 커피숍과 다방 등 휴게음식점은 44곳이다. 2018년과 2019년 한 해 각각 207곳, 275곳이 창업한 것을 감안하면 감소세가 확연하다. 2018년 493곳, 2019년 547곳이 창업했던 일반음식점도 올해는 현재까지 81곳이 창업하는데 그쳤다.

창업이 줄어든 반면 폐업은 증가 추세다. 휴게음식점은 2018년 창업 207곳·폐업 101곳, 2019년 창업 275곳·폐업 130곳으로 2곳이 창업하는 동안 1곳 꼴로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올해는 폐업이 30곳으로 창업 대비 폐업 숫자가 증가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올해 폐업한 일반음식점은 67곳이다.

게다가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 등 손님이 절반 이상 감소한 상황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들이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압박을 버티지 못해 폐업이 속출하고, 빚만 떠안은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금은 외식업계 자영업자 중 직원들을 줄이면서 힘들게 견디고 있는 곳들이 적잖다"며 "하지만 코로나19가 언제 진정될지 장담하기 어렵고, 진정된다 하더라도 그 충격은 몇 달에 걸쳐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철 맞은 학꽁치 낚시 24일 제주시 애월읍 가문동포구 방파제에서 낚시객들이 제철 맞은 학꽁치 낚시를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1차산업도 어려움… 농어촌기금 신청 급증

제주시 상반기 융자신청 결과
2432곳·921억… 작년比 92%↑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1차산업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올해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액수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 접수 결과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농협, 법인) 등 2432개소에서 921억원에 이른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융자신청액(480억원)에 비해 92% 증가한 수치다.

융자주체별로는 개인이 2374건·753억원, 생산자단체가 58건·168억원으로 개인 신청비율이 전체 8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용용도별로는 운전자금이 2397건·882억 원, 시설자금이 35건·39억원으로 운전자금 신청비율이 전체 96%를 차지했다. 사업분야별로는 농업분야 2177건·696억원, 수산분야 142건·147억원, 축산분야 110건·77억원, 임업분야 3건·1억원으로 집계돼 농업분야가 전체 75%로 가장 높았다.

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1차산업분야 농어가 및 법인 등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올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지원규모를 2500억원(지난해 18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또한 융자이율을 기존보다 0.2% 하향한 0.7%로 조정 부담을 낮췄다.

시는 융자금 신청자에 대한 적격여부 등 서류검토 후에 조기 융자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윤형기자 yhlee@ihalla.com

"불안감·스트레스 떨치세요"
서귀포보건소 심리지원 진행

서귀포보건소는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심리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서귀포보건소는 코로나19에 대한 올바른 정보 및 심리방역을 위한 마음건강지침을 서귀포시청과 서귀포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더불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심층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 및 전문 의료기관 연계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24시간 심리지원 서비스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문의 서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064-760-6551). 이태윤기자

제주도의원 재·보선 예비후보에게 듣는다 대정읍 선거구 <8> 무소속 양병우

"풍부한 행정경험… 지역의 참 일꾼 될 것"

지역발전 예산 대폭 확대
균형발전 인프라 미래 설계
마늘농가 소득 보장 등 공약

>> 양병우 프로필

▷생년월일=1958년 5월 20일
▷학력=탐라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졸업
▷주요경력=(전)대정읍장, (전)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비후보는 풍부한 행정실무경험으로 참 일꾼으로 대정읍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마 결심 이유는**=대정읍 지역은 최근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신·구간, 계층간, 세대간 조화를 가능하게하는 동력이 절실하고 나아가 변화를 수용하고 그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마음가짐과 지혜를 가진 일꾼이 필요한 상황이다.

저는 대정읍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국장, 4·3사업소 팀장 등 제주도정은 물론 대정지역의 현안문제의 실무를 몸으로 겪어왔다.

제주도정과 대정읍의 발전 사이를 연결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도의원의 역할이라고 평소에 생각해 왔다. 이러한 저의 풍부한 경험이 제주도정은 물론 대정읍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을 하고 있다. 참일꾼으로 지역을 대변하고 지역의 일꾼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신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당선되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은**=첫째, 지역발전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제주도정 모든 분야의 예산 중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

둘째, 밭작물농업을 보호·보장하겠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늘 농업 문제 등의 현안을 비즈니스맨이라는 마인드를 갖고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겠다.

셋째, 균형발전의 인프라를 통한 대정읍 지역의 미래를 열어 가겠다. 대정읍 지역의 발전은 새롭게 형성된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월드 등으로 연결돼야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교통의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과 해법은**=마늘가격 안정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보장이 대정지역의 최우선 과제다. 또한 영어교육도시 건설에 따른 지역의 서비스상권과의 인프라가 구축돼야 지역경제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함께 과거 송악산군비행장 반대투쟁을 통해 지켜낸 국방부소유의 알뜨르비행장 일대의 토지를 지역에 환원시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이에 '알뜨르비행장 부지 지역환원 대책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지역의 힘을 모아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아울러 최남단 마라도와 청정의 가파도-송악산을 잇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개발의 적정성을 지켜 청정 대정읍의 모습을 지켜나가겠다.

▶**예비후보만의 장점은**=저는 대정읍장을 역임하는 동안에는 택시 주차공간 등 도시정비를 새롭게 시행한 경험이 있고, 마을 구석구석 현안문제들을 두루 확인하고 나아가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제주도의 현안문제에 대해 다양한 경험들을 축적하고 있다.

특히 모든 연령층을 대변할 수 있는 소통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도 저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정리=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도,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국가계획과 연계하고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한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용역을 통해 국토종합계획,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제주미래비전 등 상위계획을 반영해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기존 2025년 도시기본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분석을 통해 제주도의 장기 도시발전 방향과 도시관리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현재 입찰 공고 중으로 4월말 용역수행기관을 선정, 18개월간 연구용역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도민참여단을 구성해 도민과 함께 제주의 장기발전방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도의원 재·보궐선거 브리핑

박정규 "지속가능한 공동체"

서귀포시 대정읍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정규 예비후보는 24일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로 제주를 견인하기 위한 지역농업의 보호·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박 예비후보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화, 도서지역 농산물 운송비 지원 등을 공약했다. 이태윤기자

原州邉氏 濟州道宗親會
定期總會 開催案內

原州邉氏 入島組 時享奉祭 및 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하오니 宗親諸位께서는 參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 19 여파로 참석시 마스크 착용 부탁 드립니다.)

다 음
■ 日 時 : 2020年 3月 29日(日) 午前 10時 (陰 3月 6日 日曜日)
▶ 場 所 : 老衡洞 入島組 墓域
▶ 會議案件 :
① 2019年度 決算 承認의 件
② 2020年度 事業計劃 및 豫算 歲入歲出(案) 承認의 件
▶ 連 絡 處 : 總務 변성찬 010-8663-5348
財務 변영종 010-2690-4886

原州邉氏 濟州道宗親會
會 長 邉 昌 憲

그랜드 보청기

경자년 보청기 파격 대할인
보청기 전 브랜드 50~60% 대할인!!
삼촌들 혼저 전화 주십서! 기다렴수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캠페인
1. 30초 동안 흐르는 물에 손씻기
2.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3. 마스크 착용 생활화 하기
그랜드 보청기는 고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NAVER 그랜드보청기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사거리 동쪽 100m 행복빵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 보청기 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읍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제)州(주)리모델링
辛(신)一(일)祚(조)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붙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는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